



중국이 남해 9단선을 강경하게 주장하며 이전의 외교적 협약들을 무시하고 무차별적 해

상확장을 꾀하고 있는 현재, 이제 중국이 엽신여기고 있는 국제법에 대해 미국이 나서야 한다. 미국은 중국이 현재 자신들의 암초를 모두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대만의 이투아바섬을 실효적 영토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대만이 중국의 해상확장을 견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물론 이투아바 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국은 대만의 대중 해상방어 또한 지원해야 한다. 이는 레이더와 대공방어 미사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은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의미 있는 저항 없이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화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쉽게 허용할 수 없다. 중국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미국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번역자: 이재기

출처: <http://www.aei.org/publication/to-respond-to-chinas-artificial-islands-its-time-to-recognize-a-real-one/>